

자기소개서

소 속	○○○○초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함열 교육가족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아이들과 좌충우돌 치열하게 살아가며 함께 배우고 깨우치고 자랐던 초등학교 20년, 제 자신이 꽃이 되기보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물 주고 햇빛과 바람 들게 하는 정원사로 살아온 7년 6개월 교감을 거쳐 이제 ‘교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서툴지만 용감했던 새내기 교사가 조금씩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 덕분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저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도 ‘좋은’ 교육을 하는 것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꿈꾸는 학교는 모든 사람(구성원)이 존중받으며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좋은’ 친구가 되며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저 또한 ‘좋은’ 리더로, 일꾼으로, 협력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함열 교육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꽃으로 피어나다 (교사 1994.11. ~ 2014. 8.)

1. 교학상장 20년 - 아이들과 더불어 성장하다

20여 년간 초등학교사로 아이들 곁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 교사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 미래를 위해 현재를 견뎌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충분히 행복을 누려야 할 존엄한 존재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시와 관리가 아니라 격려와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학급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상황 해결, 가르칠 내용과 방법, 학교행사와 업무 추진까지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지지와 신뢰, 협력으로 저 또한 아이들만큼 배우고 자란 시간이었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평생 학습자로서 살아갈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침독서를 생활화하고 아이들과 체험 중심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며 생각과 마음 키우는 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전북 책읽기교육연구회 <○○○○>, 전북e논술 침삭교사, ○○○○ NIE교사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읽기·쓰기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력을 키워갔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움에 몰입하며 깨우치는 경험이 곧 ‘좋은 수업’이란 생각으로 수업 공개와 나눔 실천을 꾸준히 하면서 ○○시 좋은 수업 선도교사(2003), ○○시 수업 선도교사 우수교사(1등급 2010), 수업 우수교사 표창(교육부장관 2011)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교과서 <우리들은 1학년>(2007~2008), <전라북도의 생활>(2013~2014) 집필에 참여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한 목표를 지역, 학생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수업 역량을 키웠습니다.

2. 학교 시스템을 고민하고 길을 찾아 나서다

경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학교 적응에 전전긍긍하던 새내기를 벗어나 학급을 넘어선 학교 시스템과 아이들과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을 고민하며 제 역할을 찾아 실천하였습니다.

전주 대규모 학교(○○○○초)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여 교육과정 문해력을 키우고 교육실습 협력학교(○○○○초, ○○○○초)를 추진하며 부족하지만 교사의 교사가 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교수학습 활동 전개, 교사로서의 제 역할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저 또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작은 학교(○○초) 근무 첫째 45명이던 학생 수가 3년 지나니 20명 초반대로 줄면서 학교의 존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어울림학교’ 운영을 시작하였고,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김제 시내 학교와 공동 통학구로 운영하는 어울림학교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작은 학교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어울림학교 운영 1년 만에 21명에서 28명으로, 제가 맡은 3학년은 1명에서 5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치유의 환경에서 나날이 밝고 자존감을 키워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학교라는 배움터를 가꾸는 정원사로(교감 2014. 9. ~ 현재) ●

1. 학교의 정서적 온도를 높이다

교감으로서 가장 먼저 노력했던 부분은 학교라는 공간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함은 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각자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따뜻함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온기가 학교라는 공간에, 교육과정에, 그것이 실현되는 교실에, 구성원의 관계에 훈훈하게 자리잡아 학교의 기운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선배로서, 수업 컨설턴트로서, 상담가로서,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적인 운영 방안을 조언하고 협력하며 교무행정업무 지원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도심학교이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교감으로 6년 6개월(○○○○초, ○○○○초)을 근무하며 가정에서의 돌봄이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과 주변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선생님 또한 상처받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도록 학교내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을 연결하여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협력하였습니다.

2. 혁신학교 교감으로 살아가다

제가 교감으로 근무한 세 학교는 모두 혁신학교(○○초, ○○○○초, ○○○○초)입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가지를 줄이고 학교의 중심을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교내 수업실천 연구동아리를 만들어 작은 단위 자발적인 수업 나눔 실천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한 공동 연구와 실천기록에 집중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선생님들도 성장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학교살이에 대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중점 교육활동, 함께 지원해야 할 아이에 대해 논의하는 교육과정 나눔 시간을 운영하고 협의 과정과 결과, 성찰글을 작성해 의미있는 공동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학생 삶을 중심에 두고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며 만들어가는 교사교육과정, 전국 표준 교육과정이 아닌 우리학교 아이들 실정에 맞는 학교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 서툴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도전하며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근무 7년 6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마음껏 교육적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혁신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교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전국의 많은 교감, 교육전문직원들과 사례를 나누고(혁신학교 운영 사례 발표 5회) 혁신학교 컨설턴트, 혁신교육 연수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놀이공간 개선사업을 주도하여 조회대를 쉼과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배움으로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수업축제를 운영하면서 학교자치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학부모 업무를 직접 맡아 학부모 다모임과 간담회, 책 읽는 학부모 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와의 첫 간담회 때 5명의 참여로 시작하였는데 3년째 학기말 간담회에는 30여 명이 참여하고 그 진행도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 공모교장에 도전하며 ●

함열초등학교는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함열교육’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교육과정-수업-평가로 참학력을 키우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4년간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제 한 뼘 더 깊어지는 ‘혁신더하기학교’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함열의 아이들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서로를 살피며, 자기 삶을 세울 수 있는 배움에 흠뻑 빠지는 즐거운 학교, 배움의 끝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그치지 않고 공동선에 기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건강하게 지속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혁신더하기학교의 중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스무명 남짓에서 2천 명을 육박하는 다양한 규모의 학교 경험, 7년 6개월의 혁신학교 교감으로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교원의 업무경감 지원, 혁신 교육과정 운영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함열의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혁신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학교들과 연대하며 혁신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성찰과 참여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직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정과 긍지를 갖고 함열교육에 참여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부모는 학교와 함께 더 풍요로워지고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토대로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